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응급처치 요령(4)

1. 외부 출혈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 처치

외상(칼에 베이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경우 등)에 의해 외부의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간단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면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응급 처치로는 출혈되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힘껏 눌러주는 압박 지혈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일단 출혈되는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면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그림 1).



<그림 1> 압박 지혈법

제대로 알자 1

- 전문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까?
-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 일반인이 심폐 소생술을 시행해도 법적 책임은 없으며, 효과는 매우 크다.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면 뇌로 피가 흐르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특히, 심장병(심근경색 등)에 의해 심장마비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인이 심폐 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한다면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 10배 이상 높아진다. 심폐 소생술을 정확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6개~1년마다 실습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혈되는 주위를 끈으로 묶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가?
- 그렇지 않다.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신체를 끈으로 묶게 되면 묶인 부위의 조직이 압력을 받아서 일부가 괴사되고(썩게 되고)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오히려 팔다리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한다. 아무리 압박해도 지혈이 되지 않고 병원까지 이송하려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출혈되는 주위를 묶되.
- ① 폭이 3~5cm가 되는 천이나 헝겊 등을 이용하며,

- ② 묶은 후에는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10분씩 풀어 주어야 한다(그림2).

<그림 2> 출혈 부위를 묶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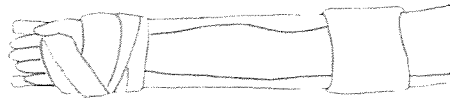
- 출혈 부위에 담뱃가루나 오징어 뱃가루를 뿌리면 정말 좋은가?
- 담뱃가루와 오징어 뼈 등에는 각종 세균이나 오염된 물질이 많으므로 나중에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15분 이상만 압박한다면 대부분의 출혈은 자연히 멈추게 되며, 감염의 위험도 거의 없으므로 피를 멈추게 하는데는 압박 지혈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다.

2. 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법

교통 사고 혹은 추락사고 등으로 인해 외상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지 말도록 하고 119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는 것이 좋다.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에는 심폐 소생술과 같은 기본적인 응급 처치를 시행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119로 연락이 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응급 처치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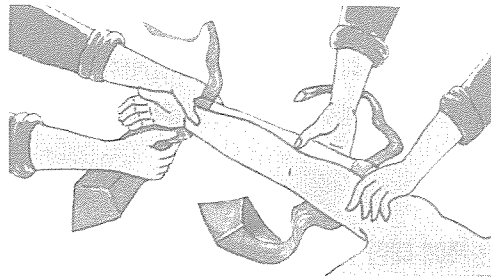
1) 골절(뼈가 부러짐)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산악 등)에서는 신문지, 나무 등을 이용하여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를 고정시킨다. 신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문지 2~3장을 넓게 펴서 둘둘 말은 것 2개를 준비하여 통증 부위의 주위 관절을 모두 고정한다(그림 3).



〈그림 3〉 신문지를 이용하여 관절을 고정시킨 모습

다만, 끈으로 묶을 때에는 신문물을 묶어서 매듭을 만들고, 다시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매듭을 만든 다음에 반대쪽 신문지 말이를 묶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그림 4).



〈그림 4〉 신문지를 이용하여 관절을 고정하는 응급 처치 요령

제대로 알자2

- 외상으로 외부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 외상(추락사고,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우에는 외부의 출혈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내부(폐, 척추, 배 등)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환자를 일반인이 옮기는 경우, 2차 손상(추가 손상)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출혈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 누구든 사고 환자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1분이더라도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 비록 몇 분 빨리 이송했다 하더라도 생존할 확률은 예상 밖으로 오히려 적다. 사고로 사망하는 환자의 50%는 사고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은 아무리 빨리 전문 처치를 시행하

더라도 생존할 확률이 1% 내외이다. 반면에 사고 후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환자(전체의 30%)들은 부적절한 응급 처치 및 이송에 의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문 처치에 의해 생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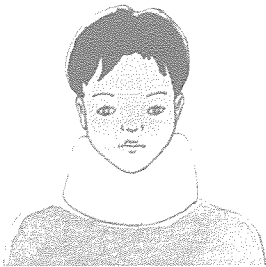
- 교통사고 시에는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안전하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인가?
-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률은 2~3배 높아진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우선 사고 당시에 차량 내부의 구조물과 부딪히면서 1차 손상을 받으며,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차체에 부딪히는 2차 손상을 받고, 지면에 떨어지면서 3차 손상을 받으므로 사망률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대로 알자3

- 경련 하는 동안에 우황청심환을 먹이면 진정되는가?
→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으므로 우황청심환을 먹어도 삼킬 수 없으며, 또한 우황청심환이 기도에 걸리는 경우에는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 경련 하는 동안에는 환자의 팔다리를 꼭 잡아야 하는가?
→ 잡지 말고 관찰만 한다. 경련을 하는 동안에는 근육의 강직 현상이 심해져 환자의 팔다리를 꼭 잡는 경우에는 팔다리가 부러지는 현상(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목에 통증이 심한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산악 등)에서는 수건을 이용하여 목을 고정시킨다. 수건을 넓게 편 다음에 목의 넓이만큼의 간격으로 수건을 접는다(그림5). 접은 수건을 목에 감고 핀으로 고정하면 훌륭한 부목이 된다.



〈그림 5〉 목의 통증에 대한 응급 처치

3) 팔다리가 마비된 경우

환자를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곳까지 누군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다만, 체온을 보호할 수 있도록 두꺼운 모포로 환자를 덮어 주어야 한다.

3. 경련이 발생한 환자에게 취해야 할 응급 처치

경련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경련을 목격하는 순간에 일반인이 취해야 할 응급 처치는 다음과 같다. 72

경련 환자 목격 시 응급 처치 요령

- ① 주위의 위험한 물건(불, 날카로운 물체 등)을 치운다.
- ② 혀가 물리지 않도록, 손수건으로 연필 등을 들들 말아서 입에 물린다.
- ③ 넥타이, 브래지어, 허리띠 등을 풀어서 느슨하게 한다.
- ④ 경련하는 동안에는 환자의 신체를 묶지 말아야 한다.
- ⑤ 응급 의료 체계(전화 119)로 신속하게 연락한다.